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태 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려청자의 형태적 특징을
모티브로 한 백자 주기(酒器) 연구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이지현

고려청자의 형태적 특징을
모티브로 한 백자 주기(酒器) 연구

박 태 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이 지 현


인 준 서

이지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5월

심사위원장 김 지 관 

심사위원 박 태 성 

심사위원 한 영 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고려청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예품으로써 정교한 기술과 조형미는 당시의 높은 문화적 수준과 고도의 예술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고려청자에서 보이는 형태적 조형미는 당시 귀족문화의 고급 취향과 불교 문화의 정수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청자의 형상이 갖는 가치는 오늘날 예술은 물론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려청자의 형태적 조형미에 주목하여 조형적 특질의 파악과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상적 표현의 모티브로 삼고자 하였다.

고려청자에서 보이는 조형적 형상성은 단순한 외형적 형태에서만 아닌 비색이라는 고유의 색이 갖는 특질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며 고려청자의 형상성에 대한 파악은 고려청자만의 형과 색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고려청자의 형태적 조형미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 풍요로움과 새로운 음주문화를 제안할 수 있는 주기(酒器)제작에 적용하였다.

주기의 제작에 있어 청자의 물리적, 기능적 한계성에 대해 경질자기 점토로의 대체에 의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장식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비색이 부여하는 형태적 조형미에 착목하여 자기 소지에 의한 뚜렷한 윤곽과 조형적 미감의 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약을 제작하고자 실험을 전개하였다.

주기(酒器)는 술을 음용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기능적인 실용성은 물론이고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멋과 맛을 줄 수 있는 장식성 또는 예술성이 가미된 용기로서의 조형적 미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고려청자의 조형적 특질을 활용하여 요즘의 술 문화

에 근거한 기능성 및 실용성과 조형적 표현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기 세트를 제안하였다.

제작에 있어서는 주기 세트의 구성품 제작에 적합한 물레 성형과 석고 몰드를 이용한 슬립 캐스팅 기법을 각 구성품의 구조에 맞게 분별하여 사용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유약과의 조화를 위해 표면장식 방법을 모색하였다. 주된 장식방법으로서는 조각을 위주로 한 투각, 양각, 음각 등이 있으며 타 재료와의 접목에 의한 장식성의 강조 및 기능성 보강을 시도하였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고려청자의 형태적 특질과 조형미를 재구성과 재조합이라는 연구방법을 통해 새로운 형태적 조형미를 제시하고 일상생활에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현대적 감각의 주기(酒器)를 제안함으로써 전통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하나의 조형적 표현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본론	4
1. 고려청자의 일반적 고찰	4
1) 고려청자의 발전과정	4
2) 고려청자의 유형	7
3) 고려청자의 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	15
2. 고려청자의 재해석 및 재구성	24
1) 고려청자 유물을 백자 소지로의 재구성	24
2) 고화도 안료를 첨가한 색 유약 실험	25
3. 시작품 제작	30
1) 주기(酒器)의 제작방법 및 내용	30
2) 시작품의 사진 및 해설	33
III. 결론	59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완, 접시	17
【표 2】 잔	18
【표 3】 뚜껑형 잔	19
【표 4】 탁잔형 잔	20
【표 5】 마상배형	21
【표 6】 주자(注子)	22
【표 7】 은제 및 기타 소재에 의한 유물	23
【표 8】 고화도 안료를 첨가한 유약발색실험	28
【표 9】 두 가지 고화도 안료를 첨가한 유약발색실험	28
【표 10】 두 가지 고화도 안료를 첨가한 유약발색실험	29
【표 11】 뚜껑형 잔의 재구성	33
【표 12】 탁잔형 잔의 재구성	37
【표 13】 굽이 좁은 잔과 탁잔의 재구성	39
【표 14】 투각 탁잔형 잔의 재구성	41
【표 15】 표형 주자의 재구성	43
【표 16】 흑유 주자의 재구성	47
【표 17】 반원형 주자의 재구성	49
【표 18】 흑유 주전자의 재구성	51
【표 19】 청자 주자와 승반의 재구성	53
【표 20】 마상배형의 재구성	55
【표 21】 주칠 술병의 재구성	57

도 판 목 차

【도판 1】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5
【도판 2】 청자 상감 국화당초문 대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5
【도판 3】 청자 상감 유연문 ‘덕천(德泉)’ 명 매병, 고려, 호림박물관	6
【도판 4】 분청사기 상감 연판문 ‘義成庫’ 명 매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	6
【도판 5】 청자 참외모양 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8
【도판 6】 청자 기린장식 향로,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8
【도판 7】 청자 음각연화당초문 매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10
【도판 8】 청자 투각연꽃넙쿨무늬 붓꽂이,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10
【도판 9】 청자 감운학문 매병, 고려, 간송미술관	11
【도판 10】 청자 상감모란국화무늬참외모양 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11
【도판 11】 청자 상감동화포도동자무늬 조롱박모양 주전자와 받침,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12
【도판 12】 청자 동화 잔과 잔받침,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12
【도판 13】 청자 철화풀꽃무늬 광구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13
【도판 14】 청자 철유상감꽃새무늬 네귀항아리,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13
【도판 15】 청자 연리문화형 잔,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13
【도판 16】 청자 연리무늬 합,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13
【도판 17】 청자 퇴화연꽃넙쿨무늬 주자,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14
【도판 18】 청자 철화퇴화꽃가지무늬 매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14
【도판 19】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26
【도판 20】 유약 시편	27
【도판 21】 M1350.3.1.~8	28

【도판 22】	H610.3.1.~8	28
【도판 23】	H1203.1.~8	28
【도판 24】	M141.3.1~8	28
【도판 25】	M1350.M142.3a.1.~8	28
【도판 26】	ApG.H120.3.1~8	29
【도판 27】	M1350.M240.3.1~8	29
【도판 28】	H120.M142.3.1~8	29
【도판 29】	M1350.M142.3T.a.1~8	29
【도판 30】	H120.M142.3T.1~8	29
【도판 31】	H120.M142.3T.a.1~8	29

시 작 품 목 차

【작품 1】 양각 연판문 주기 세트	34
【작품 2】 음각 선문 주기세트	35
【작품 3】 원통형 뚜껑잔세트	36
【작품 4】 탁잔과 촛대	38
【작품 5】 꽃입형 탁잔과 주병	40
【작품 6】 투각 탁잔 주기세트	42
【작품 7】 조롱박형 주자세트	44
【작품 8】 넝쿨손잡이 주자와 승반	45
【작품 9】 표주박형 주자세트	46
【작품 10】 짧은 목 주자세트	48
【작품 11】 양각 다면 반원 주기세트	50
【작품 12】 양각 다면 주기세트	52
【작품 13】 높은 손잡이 주자와 양각 국판문 승반	54
【작품 14】 고죽배	56
【작품 15】 1인 다각 주기	58

I. 서론

1. 연구의 목적

12세기에 이르면 고려 시대는 경제 및 문화의 전성기로서 화려한 불교 문화와 귀족문화를 바탕으로 화려하고 장식성이 뛰어난 공예품들이 제작되었다. 특히 우리 도자 문화를 대표하는 고려청자는 당시 기술의 발전과 안정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안정기에 들어가며 식기는 물론 장식품, 의식용기, 건축 소재까지 다양한 기물들이 제작되고 사회에 유통되었다. 당시 제작된 청자의 독특한 미감(美感)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예술성과 시대적 정신 그리고 생활상이 반영된 결과로서 비색으로 대표되는 유약의 색상과 우아한 청자의 형태적 매력은 조형적 활용에 있어서도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자의 조형적 가치는 당시의 높은 기술력에 근거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특히 유려한 곡선과 균형 잡힌 형태의 조형미는 지금의 도자예술과 산업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자의 형태적 조형미에 주목하여 현대 도자공예의 기술적 배경과 조형적 의미에 근거한 새로운 도자 조형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청자의 형태적 조형미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형적 형태 및 형상에 대한 도출을 시도하며 이를 도자 아이템에 접목함으로써 일상용품으로의 활용은 물론 고려청자의 조형적 특질이 도자 조형 표현에 있어 하나의 방법론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고려청자의 형태적 조형미의 활용에 있어 구체적 아이템으로는 주

기(酒器)를 선정하였다. 음주 행위는 우리 생활의 멋과 일상의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일상생활로서 술과 함께하는 주기는 본연의 기능성은 물론 사용자의 감정을 위로할 수 있으며 재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 시대에 제작되었던 청자의 유물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청자의 조형적 형태미의 접목을 통한 오늘날 우리 일상을 풍요롭게 꾸며줄 수 있는 주기의 새로운 조형미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경질자기 점토로의 대체에 의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음주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조형적 특질을 지닌 주기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고려청자의 조형성에 대한 고찰과 이를 통한 구체적인 형태적, 색감적 조형미를 도출하고 이를 현대의 술자리에서 향유할 수 있는 주기(酒器)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먼저 고려청자에 대한 자료조사 및 고찰방법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유물을 선정하여 10~15세기까지의 발전과정을 간단히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유물의 선정은 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적절한 사료로 보이는 타 박물관의 유물 또한 연구범위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자의 시대별 흐름을 파악한 후 12세기 전성기의 유물을 기준으로 유형별 종류를 표로 정리하고 특징을 알아보았다.

고려청자는 일상용기부터 장식용기, 건축자재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조형적 형태미가 뚜렷한 일상용의 기능을 가진 청자를 기준으로 형태적 특징과 사용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를 통해 정리한 유물들은 형태적 조형미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재구성 또는 재조합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조형적 이미지를 주기형태에 적용하여 세트로 제작하였다.

고려청자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 외에 또 하나의 주된 연구내용으로는 청자의 소지에 관한 내용이다. 청자 소지가 갖는 물리적, 화학적 기능의 한계가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 현대적 미감을 표현하고자 백자 소지를 태토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자의 아름다운 조형미는 청자의 비색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백자 소지에 적합한 유약을 사용함으로써 더 명확하고 아름다운 윤곽의 주기를 제작하고자 고화도 안료를 첨가한 유약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고려청자의 형태적 특징과 백자의 재료적 물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방법으로 조각에 의한 장식방법을 선택하여 다양한 문양으로 표현하였다.

성형방법에 있어서는 형태적 변형이 용이한 물레 성형을 주요 제작방식으로 사용하였으며, 물대와 손잡이는 석고 몰드를 이용한 슬립 캐스팅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고려청자의 조형적 미감과 새로운 음주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기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고려청자의 일반적 고찰

1) 고려청자의 발전과정

10세기경 고려의 도자공예는 중국의 청자 기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은 송(宋)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적·문화적 교섭이 활발하였던 것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점차 중국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술과 유약을 연마해 고려청자로 대표되는 비색(翡色)의 아름다움을 발전시켜 12세기에 고려청자는 전성기를 맞이한다. 장식기법은 양각, 음각 기법 등 표면을 1차 가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감(象嵌)기법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발전되었다. 고려청자는 토기와 다르게 입자가 치밀한 태토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원료와 가마 등의 새로운 기술의 수용을 의미한다.

고려전기에 해당하는 10~11세기는 청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전되는 도약기로 볼 수 있다. 11세기 이후부터는 고려만의 특색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장식기법에 있어서도 음각기법과 양각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한다. 12세기경에 이르면 송으로부터 기물에 관한 도서와 제작기술 등이 들어와 점차 기술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며 귀족적 생활상을 반영한 우아한 형상과 고급스러운 비색청자(翡色靑瓷)가 완성되었다. 이 시기에 대표작은 【도판 1】의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로 대나무 새싹인 죽순(竹筍)모양을 형상화한 상형청자(像型靑瓷)로 식물형 청자 중 유색, 조형, 장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 몸체는 세련되고 명확한 비례로 마치 물방울처럼 우아하며, 대나무 마디로 장식된 손잡이와 수구는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도판 1】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931호

빙렬(氷裂)이 없는 매끄러운 표면과 은은한 투명한 청색 등 비색 순청자 중에서도 최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12세기는 고려청자의 전성기로 다양한 기형과 장식기법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상감기법을 들 수 있다. 상감청자는 문양을 세밀하게 조각한 후 그 틈에 다른 흙을 삽입하여 문양을 장식한 청자를 말한다. 12세기 중반 이후 녹청색 청자 바탕에 예리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흑과 백의 상감문양은 고려청자에서 독자적으로 보여주며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장식기법이 되었다.¹⁾



【도판 2】 청자 상감국화당초문 대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115호



【도판 2-1】 내면

1) 강효은, 「국립박물관의 전통 주잔(酒盞)에 대한 소고(小考)」,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2010, 15쪽.

【도판 2】의 <청자 상감 국화당초문 대접>은 매우 섬세한 고도의 기술로 상감기법과 역 상감기법으로 장식되어있다. 대접의 내·외 무늬가 짜임새 있고 세련되게 가득 차 있으며 외면은 국화절지문이 흑백 상감으로 장식되어 있고 전 부분은 구름무늬와 당초문대를 두었다. 대접의 내면은 보상당초문과 중앙에 커다란 국화문이 배경을 파내고 상감한 높은 기술을 보인다. 유약의 색상 또한 청아하며 투명도가 높아 고려 전성기 청자의 매력을 가득 담고 있다.



【도판 3】 청자 상감유연문
'덕천(德泉)' 명 매병, 고려,
호림박물관



【도판 4】 분청사기 상감연판문 매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12~13세기 전반에는 철화청자와 퇴화청자가 유행을 하며 형태가 자유분방해지고 장식 또한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또 다른 인상을 준다. 몽골과의 30년간의 전쟁으로 피폐화된 경제 등의 이유로 13세기에 이르면 유약 색이 어두워지며 문양이 단순화된다. 장식과 조각은 간략해지며 유약은 불투명한 회색빛이다. 14세기 전반에는 왜구의 침입으로 강진에서만 제작되던 청자는 변형되어 전국에서 제작되기 시작하며 일반 서민까지 사용 계층이 확대되게 된다. 이와 같은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청자의 질은 점차 떨어지게

된다. 이 시기에는 간략해진 연당초무늬·버들무늬·유로수금무늬 등이 보이며 14세기 말기에서 15세기 초기 무렵에는 본래의 정교한 상감청자와는 달리 거친 느낌의 표현과 퇴화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양식은 조선 시대로 이어져 ‘분청사기’의 모태가 되었다.

2) 고려청자의 유형

고려청자의 조형성은 화려한 형태와 투명한 비색 그리고 기물의 표면에 장식된 무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자는 음각, 투각, 상감기법 등 다양한 장식기법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장식기법은 청자의 분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문양에 사용된 자연의 소재 또한 청자의 분류와 조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외에 사용된 태토 등 기술에 따라 유형별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으로 고려청자를 분류하여 보면 소문청자(素文靑瓷), 상형청자(象形靑瓷), 양각(陽刻)·음각(陰刻), 투각(透刻)청자, 상감청자(象嵌靑瓷), 청자동화(靑瓷銅貨), 철화청자(鐵畫靑瓷), 퇴화청자(堆花靑瓷), 연리문청자(緣理文靑瓷)로 분류할 수 있다.²⁾ 이와 같이 분류된 청자의 유형별 종류를 정리하여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① 소문청자(素文靑瓷)

소문(素文)은 청자에 문양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한다. 청자 가운데 가장 많은 유물이 남아 있으며 비색청자가 이에 해당한다. 소문청자는 청자의 비색을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며 12세기 전반기에 순청자의 비색이 완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유약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형태 또한 중국과는 다른 자연스러운 비례와 조화를 보이면서 고려만의 조형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2) 정양모, 『고려 청자』, 대원사, 1998, 48쪽.

순청자의 대표작은 인종 장릉에서 출토된 <청자 참외모양 병>(【도판 5】 참조)으로 유색, 형태, 제작기법 등에서 비색청자의 절정기를 보여준다. 전과 몸통 굽으로부터 이어지는 비례가 아름답고 꽃으로 조각한 주둥이와 깊은 음각으로 장식한 몸통 그리고 주름이 진 굽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맑고 깊은 색상의 비색 등의 특징을 지닌다.

1123년(인종 원년) 송나라의 사신 서궁이 고려에 오고 남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과 북송의 학자인 태평노인(太平老人)이 쓴 「수중금(袖中錦)」에서 “청자만은 중국의 많은 명요(名窯)산 청자를 빼놓고 외국산인 고려의 비색청자를 천하제일로 꼽았다”라고 기록할 정도의 당시에도 미적 가치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³⁾



【도판 5】 청자 참외모양 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제94호



【도판 6】 청자 기린장식 향로,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3) 박혜상, 「한국 근대기 고려청자의 미술품 인식형성과 확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20쪽.

② 상형청자(象形靑瓷)

청자를 식물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상형청자(象形靑瓷)이다. 11세기부터 조금씩 나타난 상형청자는 12세기 초에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여 12세기 중반으로 갈수록 유연하지만 섬세하고 예민한 표현이 담긴 청자로 발전하게 된다. 상형청자에는 석류, 표주박, 기린, 참외, 오리, 등 수많은 종류가 있고 이 형상들은 불교, 도교, 유교 등 종교적인 의미와 고려인들의 염원을 담아냈다고 볼 수 있다. 상상의 동물인 기린을 형상화한 <청자 기린장식 향로>(【도판 6】 참조)는 모래를 채워 향을 피우는 몸체와 기린이 앉아 있는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다. 향의 연기가 기린의 벌어진 입으로 뿜어 나오도록 만들어져 향로로서의 기능적 요소는 물론 조형미를 겸비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품고 있다.

③ 양각(陽刻)·음각(陰刻)청자

【도판 2】의 <청자 음각연화당초문 매병>은 음각장식이 사용된 대표적 유물로서 문양의 세밀한 부분까지 도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12세기 전반기 무렵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다.⁴⁾ 이 시기에는 양각기법 또한 다양한 문양들을 표현하는 것에 사용되며 주로 자연에서 얻은 문양들이 사용되었다. 문양들은 꽃과 줄기, 잎과 잎맥 등 세밀한 사실적 표현이 주된 특징이다. 이러한 음, 양각기법은 11세기에 이르러 상감기법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후 상감장식과 함께 조각되는 경우가 자주 보여진다. 문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며 모란, 연꽃, 당초문 포도문, 연지문, 운학문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4) 강경숙, 『한국도자사』, 도서출판 예경, 2012, 240쪽.



【도판 7】 청자 음각연화당초문 매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제97호



【도판 8】 청자 투각연꽃넙쿨무늬 붓꽂이,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932호

④ 투각(透刻)청자

투각청자는 상대적으로 수량이 적게 남아 있지만 고려인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가득 담고 있는 장식기법이다. 기물의 안이 보이도록 기벽을 뚫어서 조각한 것으로 가구용 의자, 합, 필가 등의 문방구도 남아 있으며 벽 장식용 청자 판 청자 기와 같은 건축자재도 있다.⁵⁾ 청자의 유물 중 드물게 나타나는 문방구류 중에 <청자 투각연꽃넙쿨무늬 붓꽂이>(【도판 8】 참조)가 있다. 이 붓꽂이는 몸체에 당초문과 모란문이 세밀하게 투각 장식되어 고려인들의 예술성과 기술력을 보여주며 아랫부분에는 음각으로 조각된 연판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형성이 매우 뛰어나다. 유약 색은 다소 탁하지만 고른 색상을 지니고 있고 투각·음각·양각·철화 등의 장식기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⑤ 상감청자(象嵌靑瓷)

고려청자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류인 상감청자는 고려인들의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상감기법은 12세기 중반부터 13세기 전반까지 절정기를

5) 강경숙, 『한국도자사』, 도서출판 예경, 2012, 205쪽.

가졌으며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남겼다. 상감청자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유약이 더 맑고 투명해져 장식을 더욱 돋보이도록 하였다. 청자 상감기법은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적이면서 회화적인 문양들이 나타나며 고려만의 독자적인 주제와 내용을 갖추게 된다. 이 문양들은 12세기 전반기에 도식화되면서 세련된 무늬로 발전하였다. 상감청자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도판 9】 참조)은 양식화되며 도식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매병의 전체를 감싸며 학을 생동감 있게 장식하여 자연의 모습을 담았으며 유약의 투명도가 높고 유약의 표면에 자갈한 빙렬이 분포되어있다.



【도판 9】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고려, 간송미술관, 국보 제68호



【도판 10】 청자 상감모란국화무늬참외모양 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제114호

⑥ 청자동화(靑瓷銅貨)

동화(銅貨)발색이란 도자기에 산화동 안료로 무늬를 그리거나 시유 하여 높은 온도로 환원 번조하였을 때 산화동이 붉은색으로 발색 되는 것을 말한다. 산화동을 이용하여 도자기에 선명하게 장식하는 것은 고려 시대부터 라

고 하며 기물에 산화물을 이용하여 시문하는 색상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강렬하다고 할 수 있다.⁶⁾ 동화는 열매나 꽃잎을 표현하는 것에 사용되며 드물게 전면에 산화동을 바른 종류도 있다.



【도판 11】 청자 상감동화포도동자무늬
조룡박모양주전자와 받침,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도판 12】 청자 동화 잔과 잔받침,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⑦ 철화청자(鐵畫靑瓷)

철화청자는 철사(鐵砂) 안료로 무늬를 그린 것으로 일부의 환원 번조가 아닌 산화 번조가 많이 나타나며 무늬 표면의 색과 태토의 색은 갈색을 띠고 있다. 소량의 철화(鐵畫)청자가 생산되었으며 문양은 도식화되지 않아 자유롭고 회화적으로 보인다.

철사유(鐵砂釉)를 이용한 <청자 철유상감꽃새무늬네귀 항아리>(【도판 14】 참조)은 상감기법으로 무늬를 새겨 넣은 뒤, 문양을 제외한 바탕에 철사유를 발랐다. 이 기법은 철사 안료에 철분이 많아 갈색이나 흑갈색 혹은 붉은색을 띠게 된다.

6) 정양모, 『고려 청자』, 대원사, 1998, 65쪽.



【도판 13】 청자 철화풀꽃무늬 광구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도판 14】 청자 철유상감꽃새무늬 네귀
항아리,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⑧ 연리문청자(緣理文靑瓷)

연리문청자는 청자토와 철분이 많이 섞인 흑토와, 백자를 반죽하여 섞어 회색, 백색, 흑색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연리문 기법은 8세기 당(唐)의 삼채 기법을 바탕으로 등장한 기법으로서⁷⁾ 여러 색상을 나타내는 흙을 섞어 태토를 기벽을 만들고 표면을 깎아 청자유를 사용하여 번조하면 대리석과 나뭇결 같은 무늬가 표현된다. 고려의 연리문은 여러 색상의 흙을 섞은 대로 기물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무늬가 특징인 것과 달리 당대에 시작된 중국의 연리문은 인위적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대조되는 인상을 준다.



【도판 15】 청자 연리문화형 잔,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도판 16】 청자 연리무늬 합,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⑨ 퇴화청자(堆花靑瓷)

고려인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퇴화청자⁸⁾는 철화문에서 주로 나타난다. 문양의 구성은 도식화되지 않았으며 주 문양을 회화적으로 구성하거나 철화문으로 나타낸 것이 많다. 【도판 2】의 <청자 퇴화 연꽃 넝쿨무늬 주자>는 무늬를 백토와 자토로 그려 양감이 드러나게 한 기법으로 보이는데 그 수가 매우 적게 보여지는 장식으로 독특함을 보인다. 퇴화청자 중에는 일부 면에 백토를 바르고 그 위에 음각으로 꽃무늬를 장식한 것도 있으며 퇴화문 주변에 백토를 바르고 음각으로 당초문을 나타낸 경우도 있다.



【도판 17】 청자퇴화연꽃넝쿨무늬주자,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도판 18】 청자철화퇴화꽃가지무늬매병,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이와 같이 청자는 유약의 발명과 더불어 고려인들의 숙련된 기술에 따라 시문 기법이 발전해 여러 종류의 청자로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다. 철이 함유된 태토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백색, 흑색 등 색의 조합이 가능하였으며 이것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상감기법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장식 기법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고려의 투명한 유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청아하고 맑은 유약으로 형태의 명확성을 보여주며 그 상징을 표현하여 드

7) 강경숙, 『한국도자사』, 도서출판 예경, 2012, 199쪽.

8) 정양모, 『고려 청자』, 대원사, 1998, 71쪽.

러내기에 적합하였다. 그중 비색의 발명은 기형(器形)뿐 아니라 무늬의 모습도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문양과 장식들의 분위기를 한층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보이게 한다.

기형에 있어서도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며 이중 많이 등장하는 형태로서는 참외형과 표주박형, 석류형이 있는데 이것은 많은 과육과 씨앗을 품고 있기에 그 형태에서 부귀와 다남(多男)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불교적 요소와 유교와 도교에서 유래한 형과 문양들도 많이 보여진다. 청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연꽃은 불교의 꽃으로 더러운 물에서 꽃을 피워내 맑고 화사하게 세상을 정화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청자의 기형과 문양에 다수 사용되었다.

이처럼 청자의 무늬와 기형의 소재들은 무병장수와 부귀다남을 상징하며 또한 불교에 귀의하려는 고려인들의 염원과 의미를 보여준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가지는 자연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근거로 한 나무와 꽃, 화초 등의 무늬에서는 우아한 기품과 지조를 엿볼 수 있으며 고려인들이 추구하였던 이상적인 세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고려청자의 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

고려청자는 불교 문화와 귀족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그 형태가 매우 다종다양하며 일상용기부터 건축자재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초기 청자의 형태는 주로 중국의 청자와 금속기에서 주로 가져왔으며 점차 기술이 숙련되고 장식기법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고려만의 독특한 특색이라 할 수 있는 유려한 선의 형상과 섬세한 조형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고려청자의 형태적 조형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청자의 종류로서는 식물과 동물 모양의 연적, 향로, 주자 등으로 제작된 상형청자(象形靑瓷)

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기능적 실용성보다는 의미와 상징을 중요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고려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동식물의 형상적 조형미와 적절한 기능성을 겸비한 기형(器形)과의 조화에서 매우 뛰어난 창의력과 조형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고도의 창의력과 조형성의 요인은 당시의 귀족 문화라는 배경에서 찾을 수 있기에 고려청자의 형태적 조형미는 조선백자에서 보이는 절제되고 함축적인 선과는 매우 다른 직관적인 멋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뚜렷하고 명확한 고려청자의 기품있는 형태는 12세기 전성기에 이르러 모든 종류의 청자에서 특유의 부드러운 굴곡과 유려한 선이라는 형태적 조형성을 띠게 된다.

고려의 도자는 기능에 따라 일상용기, 장식용기, 특수용기,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일상용기는 완, 접시, 술잔, 술병, 주전자, 합, 병 등을 들 수 있으며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자주 쓰이는 기물이다. 장식 용기로서는 꽃병, 문방구 등이 있으며 특수용기로서는 정병, 종, 향로 등을 의식에 사용되던 용기로 분류할 수 있다.⁹⁾ 이 외에 가구용 의자, 베개와 같이 가구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으며 벽에 장식되는 판(板), 청자 기와, 난주(欄柱)(난간 기둥) 등의 건축자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기(酒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상용기를 중심으로 고려청자의 형태적 특징과 사용성에 따른 기능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였다. 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에 있어서는 사용성을 기준으로 일상용기의 형태적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류한 유물들은 본 작업의 모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선정의 근거로 삼고 작품 제작에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9) 강경숙, 『한국도자사』, 도서출판 예경, 2012, 205쪽.

【표 1】 완, 접시

완, 접시					
유물 이름	청자 상감운학 국당초문 완	청자 꽃모양 접시	청자 상감 국화문 「계유」명 팔각접시	청자 연꽃잎 무늬 완	청자 음각 모란무늬 사각 접시
참고 도판					

완과 접시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용기로서 그 형태와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완은 전이 넓고 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며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의 조화에 의한 외형적 특징을 갖고 있다. 전 부분에 있어서는 꽃잎의 형태, 각으로 이루어진 다면체의 형태, 굽이 좁고 전이 넓게 벌어진 형태 등으로 그 형태가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매우 다양하여 쓰임 또한 다방면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완은 차와 술 같은 음료를 마실 때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지름이 10cm 정도로 크기가 발보다 작다. 음료를 마시기에 굽이 좁아 불안정해 보이는 것들은 받침을 받쳐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완은 주로 전이 넓고 굽이 좁아지는 형태로 잔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러운 곡선보다는 가파른 직선의 기형을 가지고 있다. 비탈진 선의 모습은 완의 형태를 조금 더 매끄럽고 반듯한 분위기를 풍기게끔 한다. 완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접시 또한 기본이 되는 일상 용기로 사각, 원형, 다면체, 꽃의 형태 등의 기형을 띠고 있다.

【표 2】 잔

잔					
유물 이름	청자 철화 녕 쿨무늬 잔	「중배옥배」 가 새겨진 녕쿨무늬 잔	청자 상감물가 풍경무늬 잔	청자 연리문 화형 잔	청자 황촉 규문 잔
참고 도판					
유물 이름	청자 상감 「소전명」 잔	청자 상감 「천」명 잔	청자 화형 잔	청자 상감 국화문 통형잔	청자 잔
참고 도판					

잔은 완과 함께 술, 차, 음료를 담아 마실 때 사용된 기본 용기이다. 완과 같이 단면상의 외형적 특징은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이 주를 이루며 화형(花形)잔의 기형도 많이 보인다. 표면의 무늬는 상감기법, 철화기법을 주로 사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장식적으로 표현하였다. <청자 상감 물가 풍경무늬 잔>은 손잡이가 용머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표 7】의 <은제 용모양 손잡이 잔>과 형태적 유사성이 높아 보인다. <청자 상감 「소전」명 잔>은 소전색¹⁰⁾에 납입(納入)되어 술잔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잔으로 사용하기 알맞은 크기와 완만한 곡선이 돋보인다.

잔은 완보다는 유려하고 풍만한 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음료를 따르기에 안정감이 들어 주잔(酒盞)으로 응용하기에 더 알맞은 형태로 보인다. <청자 황촉규문 잔>은 꽃의 형상을 부드럽고 유연한 곡선으로 표현하였으며 양각기법과 음각기법을 함께 사용하여 두꺼운 선 조각을 한 후 점차 면으로 사라지는 장식적 특징을 갖고 있다

10) 호림박물관 학예연구실, 『따르고 통하다, 고려주자(高麗注子) 통하고 만나다, 다반향초(茶半香初)』, 성보문화재단, 2021, 72쪽.

【표 3】 뚜껑형 잔

뚜껑형 잔					
유물 이름	청자 뚜껑 있는 잔	청자 양각 연꽃잎무늬 잔과 뚜껑	청자 상감 국화넝쿨 무늬 잔	청자 양각연관 문 통형잔	청자 상감국화 문 통형잔과 뚜껑
참고 도판					

통형잔은 중앙에 꼭지가 달린 뚜껑과 몸체가 한 벌로 구성된 잔으로서 현대의 머그컵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잔 몸체의 외면에는 연관문과 같은 자연의 소재들을 반양각으로 장식하여 담담하게 표현하였으며 상감기법을 사용하여 국화문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몸통은 직선에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지는 원통형이며 뚜껑은 몸통의 지름보다 살짝 크고 뚜껑 손잡이 꼭지는 대체로 꽃봉오리 모양의 물방울 모양을 하고 있다. 유천리 12호 가마터 출토 청자 중에 뚜껑의 꼭지가 붙어 있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린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뚜껑과 꼭지를 따로 만들고 시유한 후 재벌 소성시 유약을 이용하여 붙였던 것을 알 수 있다.¹¹⁾

전체적인 통형잔의 외형적 특징은 원통형에서 느껴지는 담담한 느낌의 부드러운 직선과 접지면으로 갈수록 둥글고 완만한 곡선의 조화라고 말할 수 있으며 여기에 뚜껑의 꼭지에 표현된 구체적 꽃봉오리 형상과의 조화에서 오는 강한 대비감을 느낄 수 있다.

11) 구일희, 윤종균, 강경남, 『자연의 노래 유천리 고려청자』, 국립중앙박물관, 2011, 18쪽.

【표 4】 탁잔형 잔

탁잔형 잔					
유물 이름	청자 상감 국화무늬 잔과 잔받침	청자 잔과 잔 받침	청자 상감 국화무늬 잔과 잔받침	청자 동화 잔과 잔받침	청자 철백화 화문 탁잔
참고 도판					

잔과 잔 받침이 한 벌로 이루어진 탁잔형은 잔 받침의 굽이 높고 장식적인 것이 특징으로 고려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많이 제작되었다. 탁잔의 양식은 당·송의 양식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12세기 전반기에는 고려적인 특색이 나타나며 독자적인 느낌을 풍긴다. 뚜껑과 함께 한 조로 이루어진 탁잔도 있으며 표면 장식기법은 상감, 음각, 양각 등 매우 다양하다.

탁잔의 경우 잔의 굽이 좁을 경우 쓰러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탁잔 윗부분에 잔을 고정할 수 있는 잔 받침 공간을 두었으며 잔을 얹어 놓았을 때 잔 받침에 끼워져 자연스럽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보인다. 이와 같이 음료를 따라 마시는 단순한 기능적 요소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에 의한 형태적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섬세한 문양과 조각 등에 의한 고도의 장식성은 고려의 차와 술에 의한 수준 높은 식음 문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탁잔의 형상은 편리성과 기능성만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식음 문화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새로운 식음 문화의 제안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 5】 마상배형











마상배형					
유물 이름	청자 마상배	청자 상감문 마상배	청자 상감 구 름 학국화넝쿨 무늬 마상배	청자 상감국화 문 고족배	청자 상감 국 당초문 마상배
참고 도판					

마상배와 고족배는 고려 시대에 쓰인 술잔으로 잦은 외침과 전쟁으로 말 위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 무신들이 술을 마시며 쓰였던 잔이다. 고려는 전쟁을 앞둔 기마 장수들에게 잘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염원을 담아 잔에 술을 부어주는 풍습이 있었다.¹²⁾ 마상배의 일반적 형태는 잔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굽다리로 구성되어 보통 와인잔의 형상과 유사하나 【표 5】의 <청자 상감국당초문 마상배>처럼 굽이 없이 아래가 뾰족한 형태로 제작되기도 한다. 이러한 마상배를 팽이형이라고 하며 말 위에서 손에 쥐고 마실 때 주로 사용된다. 높은 굽다리가 달린 술잔들은 주로 제례와 잔치에 사용되었으며 잔은 물론 굽다리 부분에도 기능적 형상과 문양 등의 장식적 표현이 보인다.

마상배의 형태는 잔에서 보여지는 완만한 곡선미와 좁고 긴장감을 주는 굽다리 라인과의 조화를 통해 독특한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와인잔에서 보이는 예리한 곡선과는 다른 풍만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형태적 조형미는 잔과 굽의 비례조절을 통해 보다 더 다양한 형상의 주잔(酒盞) 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12) 강효은, 「국립박물관의 전통 주잔(酒盞)에 대한 소고(小考)」,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2010, 25쪽

【표 6】 주자(注子)

표형(瓢形)					
유물 이름	청자 음각 무 늪 조롱박 모 양 주전자	청자 상감 넝쿨무늬문 주전자	청자 상감 포도무늬 표주박모양 주전자	청자 표주박 모양 주전자	청자 상감 모란운학문 표형 주자
참고 도판					
과형(瓜形)·구형(球形)					
유물 이름	청자 과형 주자	청자 상감 모란문 주자	청자 거북이 모양 주전자	청자 양각 대나무마디 무늬 주전자	청자 음각 모란문 주자
참고 도판					

고려 시대는 음식문화의 발전에 따라 청자 주자(注子)의 제작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주자는 다른 기종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여 제작하기에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표 6】의 주자를 보면 손잡이와 물대의 비례가 균형 잡혀 있어 사용성이 돋보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져 형태와 장식도 다양하다. 형태는 과형(瓜形)·구형(球形)·표형(瓢形)·병형(瓶形)·상형(象形) 등 자연의 소재가 주로 사용되었다.¹³⁾ 주자는 사발 또는 접시 형태의 승반(承盤)과 함께 한 벌로 구성되기도 한다. 승반은 안에 뜨거운 물을 담아 주자 안의 내용물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초기의 승반은 기벽이 높

13) 호림박물관 학예연구실, 『따르고 통하다, 고려주자(高麗注子) 통하고 만나다, 다반향초(茶半香初)』, 성보문화재단, 2021, 11쪽.

아 주자의 내용물을 데우기에 적절하였으나 점차 승반의 높이가 낮아져 장식적인 기능으로 변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형(瓢形) 주자(注子)는 정교한 곡선의 흐름에 의한 매우 화려한 장식적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균형 잡힌 표주박 형상과 더불어 한층 수려한 느낌이 든다. 과형(瓜形)을 비롯한 그 외의 주자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정교한 곡선의 조형미를 찾아볼 수 있으며 뚜껑과 수구 등에 사용된 구상적인 사물 등은 섬세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이러한 주자의 형태적 조형미가 더욱 강조되어 보여진다.

【표 7】 은제 및 기타 소재에 의한 유물

은제 및 기타 소재에 의한 유물					
유물 이름	은제 용 모양 손잡이 잔	은제 금도금 잔과 잔 받침	주칠 술병	흑유 주전자	은제도금 타출 무늬 참외모양 작은병
참고 도판					

청자의 외형적 특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금속기 비롯한 그 외 공예 분야와의 영향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고려 시대는 청자만이 아닌 도기들도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특히 흑자(黑磁)에서 보여지는 조형성은 매우 주목할만하다. 흑자는 청자와 달리 문양을 장식한 것이 드물고 형태와 문양은 청자를 모방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진한 흑색에서 오는 조형적 미감은 자체의 형상성을 더욱 강조하는 느낌이 든다. 【표 7】의 <흑유 주전자>는 이에 해당하는 좋은 예로써 형태는 부드러운 직선이 주를 이루지만 몸체의 어깨와 각이 이어지는 부분의 평연한 선의 조화는 주전자를 한층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주자의 몸체에는 촘촘한 간격으로 면을 파내어 장식된 몸체는 고려청자에서는 볼 수 없는 직선을 이용한 장식
으로 현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2. 고려청자의 재해석 및 재구성

1) 고려청자 유물을 백자 소지로의 재구성

본론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청자는 고려인들의 뛰어난 기술 연마의 결과이며 높은 이상세계를 실현한 비색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 맑은 비색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술인 상감기법의 자연스러운 무늬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며 그 결과 고려의 독자성은 다양한 종류의 청자에서 발휘되었다.

고려의 쇠퇴와 조선의 유교 통치이념으로 인해 조선왕조는 백자를 숭상하며 청자의 역사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의 백자는 고려청자와는 달리 단아하고 절제된 미감을 앞세웠던 선비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청자에서 백자로의 변화는 국가의 통치이념에도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14세기의 국제적 추세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당시 중국은 백자제작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술의 영향 등이 백자가 조선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백자는 청자와는 달리 고급자기질의 고풍토로 제작되어 철분 함량이 거의 없거나 남아 있어도 매우 미세하여 연한 회색 혹은 밝은 백색을 띠게 되며, 청자보다 높은 온도에 소성함으로써 얇고 강도 높은 그릇을 제작할 수 있다. 이로써 백자는 청자보다 조직의 입자가 더 치밀한 경질자기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이는 물리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청결과 더 견고하고 실용적인

도자기로서의 기능성을 두루 갖추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백자에서 보이는 고도의 기능성에 주목하여 고려청자가 가지고 있는 소재의 한계성과 표현의 제약성을 백자의 자기질 점토를 활용함으로써 기능의 범위와 표현에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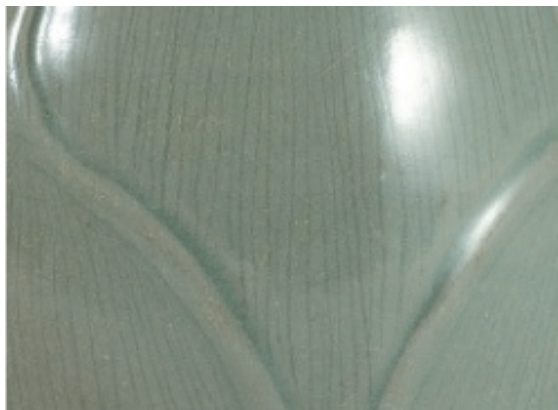
앞서 16쪽에서 언급하였듯이 연구자가 바라본 고려청자는 ‘직관성’ 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청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만큼 뚜렷하고 분명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명확한 고려청자의 형태적 특징과 조형적 요소를 모티브로 한 주기(酒器) 제작을 한층 더 고급 소재인 백자 흙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우리 현대 생활과 더 적합하여 작품 제작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청자의 조형적 특질과 백자 소지의 접목에 있어서는 고려청자의 형태적 특징을 강조하고 백자의 재료적 물성을 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간결한 조각에 의한 장식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비색을 백자 소지에서 표현하고자 고화도 안료를 이용한 색 유약을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유약을 선정하여 고려청자의 색감적 특질이 반영된 백자 주기(酒器)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2) 고화도 안료를 첨가한 색 유약 실험

도자기가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공정을 거치는데 태토의 선정부터 초별구이 후 유약을 입힌 후 재별구이를 하는 것까지 각각의 공정은 그 단계가 뚜렷하며 중요하다. 유약을 입혀 재별구이를 하는 방식은 10세기 후반 고려청자에 재별구이가 시작되면서 도자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재별에서 유약이 녹아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갑발(匣鉢)에 넣어 번조를 하는 공정은 고려 시대 이후 크게 발전하였다.

유약에는 400~800℃의 저화도에서 유리질화되는 연유(鉛釉)계열과 1100℃ 이상의 온도에서 유리질화 되는 석회유(石灰釉)계열이 있다. 연유는 주로 고구려 토기에서 발견되며 7세기경 백제와 신라 토기에서도 발견된다. 회유는 우리말로 잿물이라고 불렸으며 화본과(禾本科) 식물의 재에는 산화칼슘, 규산, 알루미늄, 나트륨 등이 있으므로 이것을 물에 타면 기본 유약이 된다. 하지만 화본과 식물의 회유에는 높은 온도에서 자기 표면에 골고루 유리질이 형성되지 않고 흘러내려 뭉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처음 중국 동한(東漢)시대 화본과 회유에 장식과 석영을 갈아 넣은 석회유(石灰釉)가 발명되었다. 고려에서는 10세기 후반 청자에 재벌구이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고급 그릇을 제작하기 위해 발전된 번조 방법임을 알 수 있다.¹⁴⁾



【도판 19】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고려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도판 19-1】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세부

유약은 산화나트륨(Na_2O), 산화칼슘(CaO), 산화칼륨(K_2O), 산화마그네슘(MgO), 산화아연(ZnO), 산화알루미늄(Al_2O_3)등과 같은 산화물(酸化物)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코발트, 동, 철, 망간 등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하면 여러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으며 청자 유약은 환원염 상태에서 철분이 산화제일철(FeO)로 변해 옅은 회청색 즉 비색(翡色)이 된다. ¹⁵⁾

14) 강경숙, 『한국도자사』, 도서출판 예경, 2012, 14쪽.

작품 제작에 있어 기물 형태의 유려한 선과 간결화된 음각, 양각 등의 표면장식을 표현하기에 있어 백색보다는 색이 있는 유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고려청자의 색감을 바탕으로 유약 실험을 진행하였다. 고화도 안료를 첨가한 다양한 색상의 유약은 백자 소지의 표면에 장식된 조각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하며 고려청자 특유의 색감은 유려한 형태적 미를 더욱 부각하기 위해 이러한 맑은 청색의 유약과 백자의 접목은 고려청자의 형태적 미를 구체화 시켜주는 것에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도판 20】 유약시편,
백자토, 판성형,
1250 °C 산화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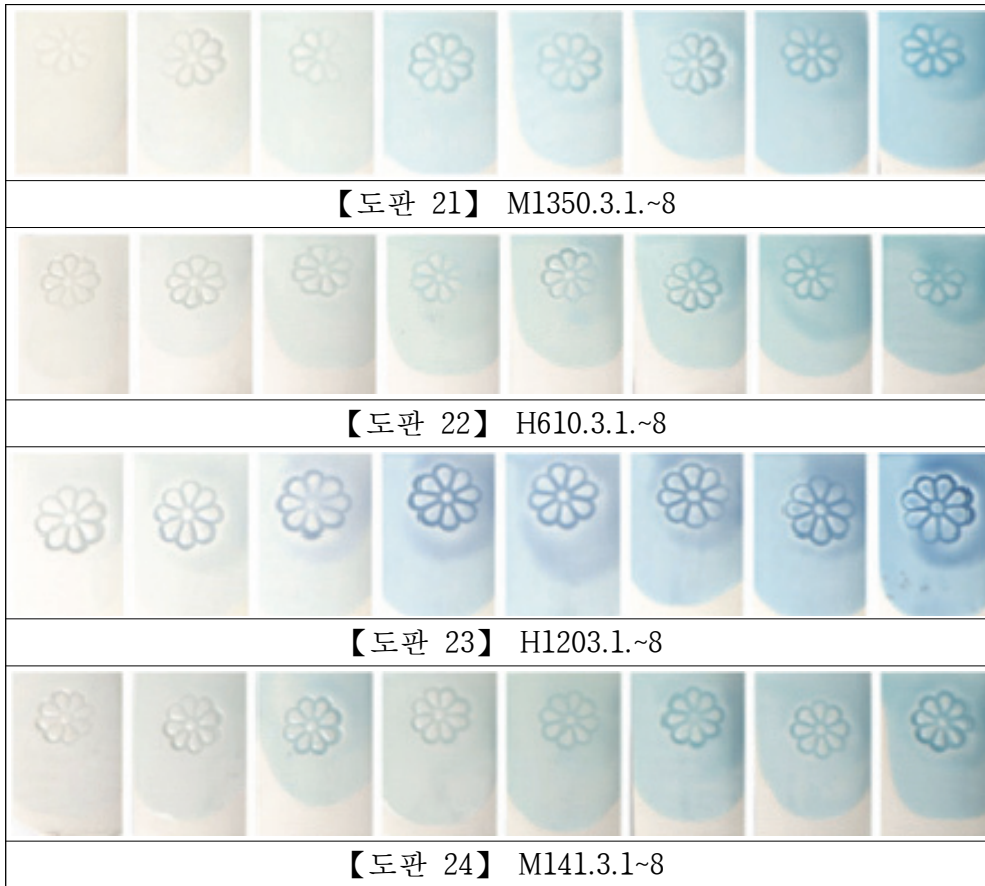
유약 실험에 있어서는 백자 흙을 6mm 두께로 얇은 흙판을 성형한 후 50mm X 80mm의 사각형 초벌기를 사용하였다. 시편 안에 음각·양각 장식과 유약과의 조화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음각의 꽃 모양 도장을 찍어 넣어 가시성을 높였다. 특히 꽃 모양의 문양은 재벌에서 표면의 높낮이 차에 따른 유약의 고임 정도를 비교할 수 있었다. 소성은 1250°C 산화소성을 기준으로 실험하였으며 투명유와 자갈한 결정이 피는 활석을 첨가한 반광유를 베이스로 하였다. 고화도 안료는 맑은 청색과 연한 녹색까지 선정하여 청자 유약

의 맑은 색 표현을 목표로 하였으며 작품에 음각·양각 장식 등의 표면 장식들이 문힐 수 있는 진한 발색의 안료는 선정하지 않았다.

유약 실험은 유약의 비중을 40~45로 맞춘 후 고화도 안료를 0.3% ~ 1%까지 첨가해 8가지 색의 농도 차를 비교하였다. 고화도 안료가 1%이상 첨가되면 유약이 탁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 1%까지 첨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유약들을 맑은 빛의 녹색에서 청색의 유약들을 작품 제작에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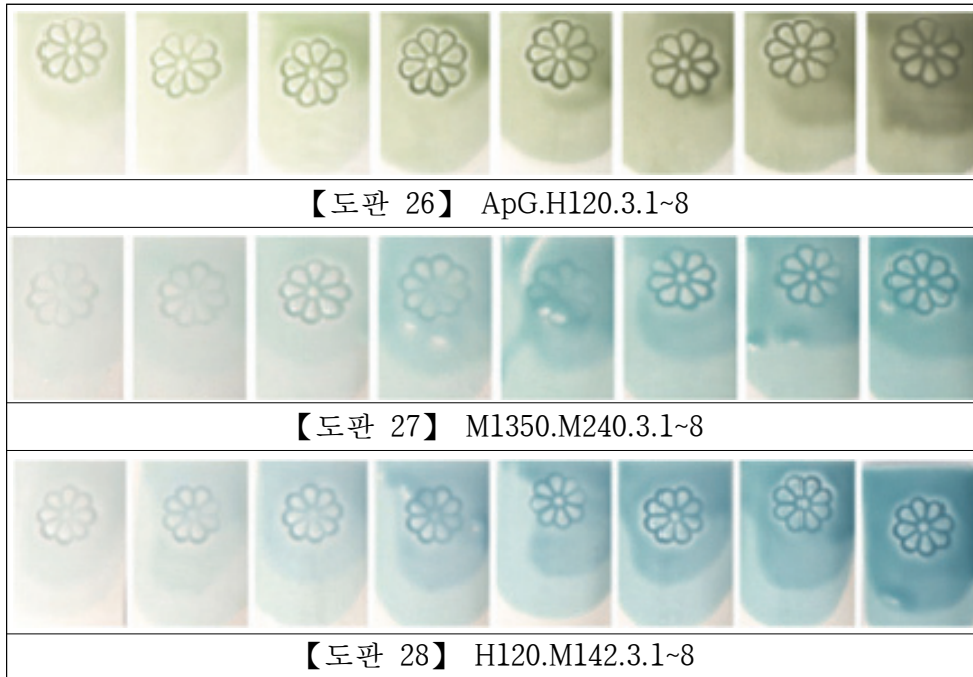
15) 강경숙, 『한국도자사』, 도서출판 예경, 2012, 15쪽.

【표 8】 고화도 안료를 첨가한 유약발색실험 / 투명유 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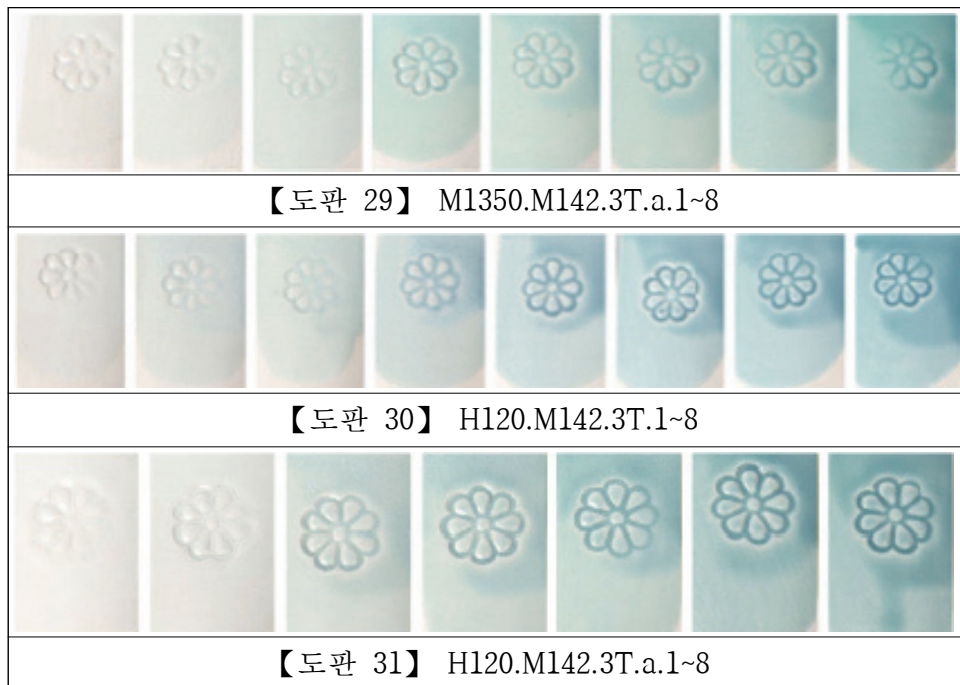


【표 9】 두 가지 고화도 안료를 첨가한 유약발색실험 / 투명유 1250℃





【표 10】 두 가지 고화도 안료를 첨가한 유약발색실험 / 반광유 1250℃



3. 시작품 제작

1) 주기(酒器)의 제작방법 및 내용

고려청자의 형태에는 고려의 왕실과 귀족, 문인들이 지향하던 예술에 대한 견해와 삶의 여유 등이 보인다. 고려 사람들은 기술과 미적인 감각, 이를 결합하여 여유롭고 풍부한 문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을 표현한 도자기를 사용하며 일상생활에서 그림을 논하였을 것이며 아름다운 그릇에 차와 술을 마시며 삶 속에서 예술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청자의 형태적 특질과 색감을 모티브로 현대적 주기(酒器)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술과 청자의 모습이 닮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술은 삶의 기호품으로 술이 담기는 주기는 일상용기 중에서 미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술자리에서는 그날의 감정과 분위기가 담겨있으며 그 자리에서 함께한 술과 주기 또한 기억에 오래 남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조형적 예술품과 같은 감동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그날의 주기를 보며 술안주 삼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서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는 상징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서양의 주기는 술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그 형태가 발전되었는데 와인 종류에 따라 향과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맥주는 맥아마다 다른 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잔들이 만들어진다. 반면에 우리의 주기는 획일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술 종류에 따라 주기가 발전하지 않은 점에 기인하고 있으나 이것에 관한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에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고찰한 고려청자의 특질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멋을 가진 주기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본론 1 - 3)장에서 도출된 형태별 특징을 바탕으로 특징이

뚜렷한 유물의 조형적 요소를 모티브로 새로운 주기 디자인을 시도하였으며 술의 종류와 모임형식에 맞게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유물에서 도출해낸 요소들을 형태뿐 아니라 장식기법인 면치기 음각장식, 양각장식으로 표현하였으며 세트별 구성에 일체감을 부여할 수 있게 특징적 요소로 활용하였다. 원작을 모티브로 한 재구성 과정은 일차적인 재현과 이를 재해석한 형과 색의 표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새로운 형과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과 형태는 주기로서 갖는 기능만이 아닌 차와 음식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작품의 주기(酒器)세트는 주자, 주잔, 안주 그릇으로 구성하였으며 술자리에 어울리는 촛대를 추가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현대의 술자리에서 주로 음용되는 술은 증류주(소주), 탁주(막걸리), 약주, 과일주 등이 있으며 외국의 술인 위스키, 맥주, 와인 등에 맞는 주기는 제작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주잔(酒盞)은 술의 도수별 한잔에 담기는 용량을 기준으로 제작하였다. 증류주는 그 도수가 다양하여 40ml~60ml까지 범주가 넓으며 약주와 과일주는 증류주에 비해 도수가 약해 60ml 정도이다. 탁주(막걸리)는 흔히 사용하고 있는 노란색 양은잔의 경우 330ml 용량이지만 최근의 탁주잔은 그 형태와 종류가 다양해져 플라스틱잔은 130ml, 도자기잔은 70ml로 본 연구에서는 150ml~200ml로 기준을 잡고 작품을 제작하였다.¹⁶⁾ 이러한 용량 기준은 청주와 탁주 음용 범위 내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온더락(On the Rock)에 의한 다양한 음용 방법을 전제로 설정한 이유이다.

주 제작기법은 여러 형태변화가 용이하고 두께의 변화에 따른 조각 장식에 적합한 물레 성형기법을 선택하였다. 물레 성형은 형태의 변화를 미세하고 섬세하게 즉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고려청자의

16) “전통주를 마시기에 좋은 잔은 무엇일까?” ,〈삶과 술〉, 2020.10.31.,
<<http://soollife.com/?p=38412>>(접속일 : 2022..0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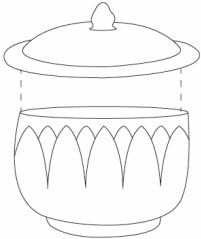
다종다양한 형태를 다채롭게 제작하고 주자의 작은 뚜껑과 같이 성형하기에 복잡하고 섬세한 부분을 성형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했다. 주자의 몰대와 손잡이는 원운동의 방법을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기에 석고 몰드를 이용한 슬립 캐스팅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몰대의 형태는 고려청자의 유려한 선을 참고하여 출수와 절수를 고려한 실용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주기의 또 다른 요소인 심미적 기능을 담아내기 위해 음각·양각 기법, 면치기, 투각 기법을 표면장식으로 사용하였다. 음각·양각 기법은 몰레 성형 후 기물의 표면의 도안화된 문양을 그려 넣은 후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조각하였다. 조각한 후 고운 사포를 이용하여 부드럽고 은은한 선이 나오도록 다듬었다. 일정한 두께의 선을 음각 조각하여 조각된 부분에 유약이 고여 선이 진하게 보이는 장식기법도 활용하였다. 면치기 기법은 일정한 면을 나누어 평평한 면이 다면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각부터 12각까지 변화를 주며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느낌이 날 수 있게 하였다. 투각 기법은 탁잔의 잔 받침 제작에 주로 사용된 기법으로 반 건조되었을 때 투각칼을 이용하여 깊고 넓은 면을 조각하였다. 투각 기법은 기물의 건조 정도가 중요하며 너무 마르면 조각을 하다 부서지는 경우가 있고 소지가 축축할 때에는 기물의 변형이 되기 쉬우므로 알맞은 건조 정도에서 조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약은 본론 2장에서 시험한 유약 시편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주기에 어울리는 색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음각조각이 새겨진 형태는 투명 유 유약을 입혀 조각의 유약이 고여 선명해 보이도록 하였다. 면치기된 기물들은 반광유 계열의 색 유약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반광유에서 보이는 표면의 은은한 결정들을 잘 보이도록 하는데 적합한 기형이라 생각된다. 유약을 입힌 후 1250℃ 산화소성 하였으며 소성이 끝난 후 경우에 따라 금속 소재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보강하기도 하였다.

2) 시작품의 사진 및 해설

시작품은 본문 2장에서 도출된 특징이 뚜렷한 유물을 선정하여 조형 요소를 모티브로 삼아 술의 종류와 기능에 따른 유형별 제작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와 같이 유물 선정과 유물의 구체적 조형 요소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작품사진과 내용을 기술하였다.

【표 11】 뚜껑형 잔의 재구성

청자 양각연꽃잎무늬 잔과 뚜껑	조형 요소
	
<p>뚜껑과 잔이 한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뚜껑의 넓이가 잔보다 살짝 넓어 닫았을 때 비레가 알맞다. 잔의 몸통은 원통형으로 비율을 다양하게 응용하기에 용이해 보인다. 연판문의 반양각 조각이 몸체 전면에 장식되어있으며 과장되지 않고 은은하게 표현되어 맑은 비색과 함께 부드러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p>	

【작품 1】

뚜껑형 잔의 형태와 연꽃잎무늬의 장식 요소를 응용하여 재구성한 주기세트이다. 연꽃잎 무늬는 주잔, 안주 그릇, 주병의 몸체 전반에 반양각 조각으로 표면장식을 하였다. 주잔(酒盞)에는 잔 받침을 더해 실용성과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주병은 주잔의 형태비율에 맞추어 일체감이 들게 하였으며 주둥이 부분이 떨어져 술을 따를 때 안정감이 있도록 하였다. 주기 세트의 전반에 조각된 반양각의 표면이 부각 되어 보일 수 있도록 투명유 계열의 청녹색 색유를 고르게 입혀 색 유약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작품 1】 양각 연판문 주기 세트, 150x270x150mm
백자소지, 물레성형 후 반양각조각, 1250℃ 산화소성

【작품 2】

【표 11】의 뚜껑형 잔을 모티브로 뚜껑 잔의 비율을 재연하여 재구성한 주기 세트이다. 음각의 가는 선을 촘촘한 간격으로 주잔과 주병 몸체 전반에 조각하여 통일성을 주었다. 주잔의 뚜껑에도 가는 선을 조각하여 몸체와 어우러지도록 하였으며 술을 마시며 흐르는 것을 보완하고자 잔 받침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선문형(線紋形)의 조각을 경쾌하고 활기찬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맑은 청색의 유약을 입혀 음각의 선 장식에 유약이 고여 강조되는 효과를 주었다.



【작품 2】 음각 선문 주기세트, 180x180x140mm
백자소지, 물레성형 후 음각조각, 1250℃ 산화소성

【작품 3】

【표 11】의 원작을 변형한 작품으로 잔의 몸통은 비례를 늘려 긴 원통형의 형상으로 표현하였으며 여기에 자연스러운 곡선의 손잡이를 더해 잔을 들었을 때 안정감이 들도록 하였다. 뚜껑은 원작과 같이 몸체의 지름보다 살짝 넓게 제작하였으며 꼭지는 중앙에 종 모양으로 반건조 상태에서 굽칼을 이용하여 일정하게 깎아 표현하였다. 주병 역시 주잔의 형태를 응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뚜껑은 원형의 넓은 전을 가려 이물질을 차단하거나 데운 술의 온도 유지의 기능을 부여하여 특정한 술의 용도에 맞게 디자인하였다. 주병에는 숙우를 더해 술을 따를 때 자연스러운 물줄기가 생길 수 있게 하였다. 자잘한 결정이 모여 반광을 나타내는 청녹색의 유약을 입혀 단조로운 면에 질감이 보이도록 하였다.



【작품 3】 원통형 뚜껑잔 세트, 230x180x150mm
백자소지, 물레성형, 슬립 캐스팅, 1250℃ 산화소성

【표 12】 탁잔형 잔의 재구성

청자 상감 국화무늬 잔과 잔받침	조형 요소
	
<p>잔 받침의 가운데에 낮은 턱이 있어 잔을 얹어 넣는 형태이며 잔 받침과 잔의 비율에 있어 미적 완성도가 높다. 고려 시대 청자 기술 전성기의 제작된 유물로 상감, 음각, 투각, 반양각의 장식들이 복합적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꽃 형태의 잔과 잔 받침의 형태적 특징이 두드러지며 잔의 전에 투각 된 부분이 둥글지 않고 중간이 살짝 올라온 예리하게 조각된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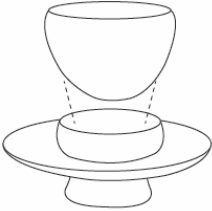
【작품 4】

탁잔형 잔의 조형적 특징을 모티브로 제작한 주잔 세트이다. 잔 받침은 잔을 받치는 턱과 중간 부분에 넓은 면이 펼쳐져 있어 잔을 뒤집어 보관할 때 편리한 기능이 더해진다. 잔 받침의 넓은 면에는 유물에서 보여지는 장식적 요소를 8각으로 둥글게 조각하여 마치 꽃의 잎처럼 보이도록 조각하였다. 주로 술을 마시는 밤에 어울리는 촛대를 추가로 제작하여 구성하였으며 전이 벌어진 형태의 특징을 살려 촛농이 흘러도 안전하게 디자인하였다. 초가 끼워지는 가운데 부분에는 금속(신주에 은도금) 재료를 이용하여 도자기와 타 재료와의 조화를 시도했다.



【작품 4】 탁잔과 촛대, 230x85x115mm
백자소지, 신주, 물레성형, 1250℃ 산화소성

【표 13】 굽이 좁은 잔과 탁잔의 재구성

청자 상감 국화무늬 잔과 잔받침	조형 요소
	
<p>잔이 잔 받침에 얹어지는 것이 아니라 굽 부분부터 중간 부분까지 끼워져 하나의 선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잔 받침에는 중앙에 구멍이 나 있어 잔을 놓았을 때 잔의 굽이 바닥에 닿지 않고 벽에 닿음으로써 안정감을 고려한 고령인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이는 주잔에 있어 조형적 요소로 응용하기에 알맞아 보인다.</p>	

【작품 5】

탁잔형 기형을 모티브로 제작한 주기세트로 잔과 잔받침의 벌어진 부분이 저면부로 갈수록 오목해지며 굽의 형태 또한 부드러운 곡선을 살려 편안함을 준다. 잔 받침에는 【작품 4】에서 응용한 유물의 장식적 요소를 활용하여 마치 가운데 잔을 받치고 있는 꽃받침처럼 보이도록 8각의 둥근 선으로 조각하였으며 유물의 경우와 같이 중앙에 구멍을 내어 잔의 오목한 굽 부분이 끼워질 수 있게 하였다. 잔은 전이 벌어지고 굽으로 갈수록 좁아지며 잔 받침에 끼워지는 부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각도를 일정하게 주었다. 주병은 탁잔의 잔 받침과 동일한 형식으로 받침을 더해 구성하였으며 곡선의 완만한 선의 몸체에 S자의 손잡이를 접합하여 기능성을 더했다. 주병과 잔의 미세한 음각 선이 두드러지도록 진한 푸른색 투명유를 입혀 산화 소성했다.



【작품 5】 꽃입형 탁잔과 주병, 230x85x115mm
백자소지, 물레성형, 슬립 캐스팅, 1250℃ 산화소성

【표 14】 투각 탁잔형 잔의 재구성

청자 잔과 잔받침	조형 요소
	
<p>잔 받침의 넓은 면이 투각장식 되어 있어 장식적이며 잔의 형태는 단순하다. 잔이 올려지는 부분의 턱은 높이가 낮고 얇으며 마치 원형의 둥근 띠가 둘러져 있는 듯한 모양새이다. 잔 받침의 보상화문(寶相華文)의 넓은 면이 투각되어 다리가 5개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으로 투각 기법을 응용한 고려청자의 모습이 잘 담겨있다.</p>	



【작품 6】

투각이 깊게 된 잔 받침을 모티브로 응용한 탁잔과 주병이다. 잔 받침에는 유물에서 보이는 넓은 면과 투각 기법을 이용하여 장식 요소로 사용하였다. 넓은 면이 투각 되어 있으면 바닥과 닫는 면은 좁고 윗부분에 무게는 상대적으로 무거워 재벌 소성 시 내화판과 닫는 부분이 수축되면서 변형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탁잔 다리 넓이에 맞는 완만한 접시를 함께 성형한 후 그 위에 얹어서 소성하여 잔 받침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잔 받침의 중앙에는 낮은 띠 모양의 턱을 주어 잔이 잔 받침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과 조형성을 겸하도록 하였으며 잔은 전이 벌어져 완만한 곡선이 보이도록 하였다. 주병의 기형 또한 잔의 완만한 곡선을 응용하여 전이 살짝 벌어지게 성형하였으며 숙우의 주둥이를 만들어 물길을 만들어 사용성을 더했다. 녹색계 반광유로 시유하여 황색과 녹색의 중간 빛깔로 투박해 보일 수 있는 투각 장식에 부드러운 느낌을 더하도록 하였다.



【작품 6】 투각 탁잔 주기세트, 230x85x115mm
백자소지, 물레성형 후 투각조각, 1250℃ 산화소성

【표 15】 표형 주자의 재구성

청자 표형 주자	조형 요소
	
<p>표형 주자의 대표 기형으로 몸통의 유려함과 풍부한 선이 어우러진다. 손잡이는 점토를 가늘게 만든 띠 세 가닥을 꼬아 만든 것으로 마치 넝쿨이 꼬여있는 모습으로 자연스럽다. 손잡이의 선이 겹쳐져 있는 생김새가 장식적이며 조롱박형 몸체인 자연의 기형과 잘 어울린다.</p>	

【작품 7】

고려청자 주자의 대표 기형인 표형 주자는 중국의 정요(定窯)의 영향을 받았다. 고려는 중국의 표형 주자의 형태를 받아들인 후 실제 표주박의 형태에 가까운 형으로 만들었다. 표형 주자는 드물게 술과 관련된 명문이 적혀져 있는 유물이 남아 있어, 술을 담았던 주자로 추정한다.

조롱박 형태의 조형적 특징을 응용한 주자를 기준으로 안주 그릇, 주잔으로 구성된 주기세트이다. 조롱박의 풍만한 볼륨을 강조하였으며 물대는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제작하였다. 손잡이의 비례는 물대와 높낮이를 맞추어 술을 따르기에 알맞은 높이에 접합하였다. 주잔의 기형 또한 부드럽고 둥근 선의 느낌과 어울리도록 하였으며 안주 그릇은 음식이 담겼을 때 안정감 있어 보이도록 안쪽으로 오목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유약은 부드러운 선과 어울리도록 광이 부드러운 청녹색 계열의 반광유를 사용했다.



【작품 7】 조롱박형 주자세트, 320x190x130mm
백자소지, 물레성형, 슬립캐스팅, 1250℃ 산화소성

【작품 8】

【표 15】 청자 표형 주자의 기형을 응용한 주자로서 주자와 승반을 더해 재구성하였다. 손잡이는 유물의 장식 요소를 응용하여 꼬인 넝쿨 모양으로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음각 조각하였으며 두 손가락이 편히 들어갈 수 있게 성형하였다. 물대의 비율은 손잡이의 비율을 의식하여 높낮이를 맞추어 접합하였다. 주자를 담는 승반의 형태는 주자의 기형을 해치지 않도록 단순하고 낮은 접시의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안주 그릇으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크기로 제작하였다.



【작품 8】 넝쿨손잡이 주자와 승반, 110x110x130mm
백자소지, 물레성형, 슬립캐스팅, 1250℃ 산화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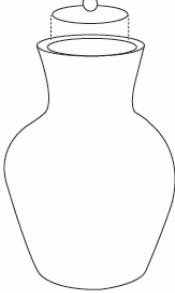
【작품 9】

【표 15】 청자 표형 주자의 기형을 응용하였으며 주자와 투각형 탁잔의 잔 받침을 하나의 세트로 재구성한 주기이다. 주자의 몸체에는 깊은 음각으로 선을 조각하여 외형의 볼륨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주자에는 뚜껑을 더했으며 꼭지는 몸체의 형태를 살려 중앙에 깊은 선을 음각 조각해 앙증맞은 분위기를 살렸다. 【작품 6】 투각 탁잔 잔 받침의 조형을 응용하여 굽이 높은 작은 접시를 함께 구성하였으며 화과자, 과일 등의 안주 그릇의 용도 외에도 평시에 주자를 올려놓음으로써 장식적인 효과를 더 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주잔은 높은 도수의 술과 어울리며 크기가 작고 높은 굽을 더해 몸체의 둥근 선이 보여지도록 하였다.



【작품 9】 표주박형 주자세트, 185x140x125mm
백자소지, 물레성형, 슬립캐스팅, 1250℃ 산화소성

【표 16】 흑유 주자의 재구성

흑유 주자	조형 요소
	
<p>고려 시대 흑유 주자로 청자와는 달리 다듬어지지 않고 투박한 기형이 특징이다. 날카롭고 섬세한 모습은 느껴지지 않으며 담담하고 꾸밈없는 기형이 돋보인다. 이러한 형태는 주로 고려 금속기 청동 주자를 본떠 만든 것이지만 금속기와는 달리 어깨의 각이 완만하고 풍만해 보인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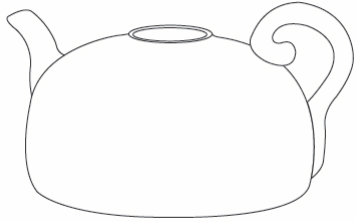
【작품 10】

흑유 주자의 조형적 요소를 모티브로 제작한 주기이다. 주자의 몸체는 사다리꼴의 이미지로 중간부에 턱을 주어 물대와 손잡이를 접합하였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하였다. 물대는 주자 안의 내용물이 끝까지 찰 수 있도록 전부분의 높이와 맞추었으며 손잡이의 높이도 물대의 높이와 맞춰 양쪽의 비율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성형하였다. 주자의 전에는 낮은 턱을 주어 뚜껑이 없어지게 성형하였으며 꼭지는 동그란 형태로 손에 쥐었을 때 편안함을 주었다. 잔은 마치 주자가 뒤집힌 모습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담하고 높이가 있는 굽을 더함으로써 격식이 있는 술자리와 어울리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10】 짧은 목 주자세트, 165x150x200mm
백자소지, 물레성형, 슬립캐스팅, 1250℃ 산화소성

【표 17】 반원형 주자의 재구성

청자 양각 모란 넝쿨무늬 주자	조형 요소
	
<p>굽이 없이 아래쪽이 묵직하고 벌어진 형태의 주자로 현대적인 느낌이 든다. 모란무늬와 당초무늬가 음각으로 전면에 조각되어 있어 매우 화려한 느낌을 주며, 손잡이 또한 자연스러운 곡선의 형태로 자연의 장식무늬와 어우러진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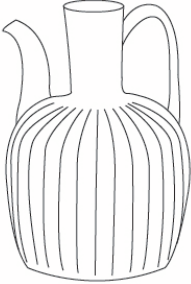
【작품 11】

고려청자의 기형 중 드물게 나타나는 반원형의 주자를 모티브로 한 주기이다. 반원형의 몸체는 굽이 없고 벌어진 형태가 돋보이며 이 형태는 현대적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주자의 몸통에는 움푹 들어간 두꺼운 선을 조각하여 색이 있는 유약을 입혔을 때 양각으로 드러난 선이 돋보이도록 하였다. 물대는 주자의 전 높기와 맞추었으며 손잡이는 몸체의 낮고 넓은 형태를 보완하고자 높은 S자형으로 형태를 제작하였다. 주자의 기형은 전 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며 뚜껑은 원작의 경우와 같이 구성에서 생략하였다. 잔의 형태 또한 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움푹 들어간 선을 조각하여 주자와의 통일성을 주었다.



【작품 11】 양각 다면 반원 주기세트, 125x95x85mm
백자소지, 물레성형, 슬립캐스팅, 1250℃ 산화소성

【표 18】 흑유 주전자의 재구성

‘하남천목[河南天目]’ 흑유 주전자	조형 요소
	
<p>흑유 주전자의 기형은 목이 길고 좁으며 풍만한 어깨로 아래로 내려 갈수록 좁아진다. 물대와 손잡이가 전의 높이에 맞게 접합되어 있어 실용성을 놓치지 않은 모양새이다. 몸체의 좁은 각도의 면을 파내어 유약을 입혀 번조하였을 때 양각의 선이 도드라져 보이는 장식적 표현은 진한 색의 유약의 장점을 잘 활용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촘촘한 간격의 선을 이용한 장식에서 매우 현대적 감성을 느낄 수 있다.</p>	

【작품 12】

유물 주자의 좁고 긴 목과 좁은 면적의 라인들의 특징을 활용하여 양각의 선이 두드러지도록 표현한 주기세트이다. 주자의 몸체는 풍만한 곡선으로 어깨와 저면부의 선을 변형하여 제작하였다. 물대와 손잡이는 사용성을 위해 주자의 높이와 맞추었으며 작은 뚜껑과 함께 구성했다. 넓고 낮은 안주그릇의 전면부에도 주자와 마찬가지로 양각 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좁은 간격의 음각조각을 장식하였으며 높은 굽을 더해 주자의 좁고 긴 목과 통일감을 주었다. 유약은 짙고 깊은 푸른색 색유를 사용하여 몸체의 선 장식을 강조하였으며 흑유 주자에서 보여지는 어두운 느낌과 달리 상쾌한 푸른색을 더함으로써 덥고 습한 여름날의 술자리에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인다.



【작품 12】 양각 다면 주기세트, 260x190x120mm
백자소지, 물레성형, 슬립캐스팅, 1250℃ 산화소성

【표 19】 청자 주자와 승반의 재구성

청자 주전자 및 받침	조형 요소
	
<p>주자를 받치고 물을 담아 주자 안의 내용물을 데우는 용도를 가진 승반은 고급 그릇으로 사용되었다. 승반 외벽에 음각기법으로 화형 장식을 하였다. 주자의 뚜껑은 음·양각기법으로 위 아래 방향이 마주 보고 있는 연판문을 장식한 것이 장식 요소의 특징으로 보여진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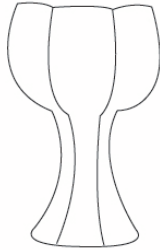
【작품 13】

승반은 뜨거운 물을 담아 술이 든 주자를 데우고 주자를 담아 두는 받침의 기능을 하며 고급 기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주자의 격식을 더하고자 승반을 주요 구성품으로 설정하였으며 몸체에는 국화문을 응용해 전면의 음각 선으로 조각하였다. 음각 선을 따라 전 부분에도 둥글게 조각하여 리듬감이 느껴지게 하였다. 주자의 몸통은 사다리꼴로 어깨에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며 뚜껑은 주자의 몸체와 하나의 선으로 보이도록 좁고 긴 원통형으로 제작하였으며 동그란 꼭지를 더했다. 주자의 손잡이는 승반에 담기 편리하도록 어깨에서 위로 치켜 올라간 듯이 성형하여 접합하였다. 담녹색의 반광유를 입혀 음각의 선이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여지도록 하였다.



【작품 13】 높은 손잡이 주자와 양각 국판문 승반,
160x105x150mm
백자소지, 물레성형, 슬립캐스팅, 1250℃ 산화소성

【표 20】 마상배형의 재구성

청자 상감 국화문 고족배	조형 요소
	
<p>고족배 형으로 술이나 물을 담기는 잔의 윗부분은 구형(球形)이며 입을 대는 전으로 갈수록 오목한 형태를 띠고 있다. 몸통보다 굽의 비율이 살짝 긴 것이 특징으로 굽다리가 길쭉해 보인다. 굽과 몸체가 이어지는 부분에는 음각의 선이 둘러져 있으며 전면부의 굽 바닥까지 8각의 세로 선으로 음각이 장식되어있다. 전에도 세로 음각 선에 맞추어 조각되어 있어 마치 하나의 꽃봉오리처럼 보인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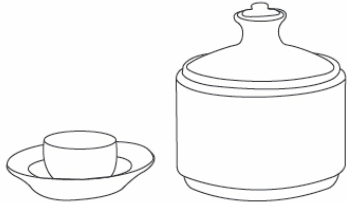
【작품 14】

고족배의 형태는 높은 굽 다리 위에 술을 담을 수 있는 둥근 완의 몸통이 특징이다. 물레 성형으로 잔의 안쪽 형태를 다듬은 후 건조 후 굽 다리의 중안부를 깎아내어 굽 다리를 제작하였다. 굽의 안쪽 부분을 파내는 것은 예리하고 작은 칼날을 사용하여 일정한 두께를 맞추었다. 기형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 음각, 양각, 면치기 등의 장식기법을 응용하여 장식하였다. 음각이 주가 된 고족배는 녹색의 투명유를 사용하여 시유하였으며 면이 매끈하게 조각된 고족배는 자갈한 결정이 피는 반광유로 시유하였다.



【작품 14】 고죽배, 80x80x100mm
백자소지, 물레성형 후 조각, 1250℃ 산화소성

【표 21】 주칠 술병의 재구성

주칠 술병	조형 요소
	
<p>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목기유물로서 목기는 재료의 물리적 특성으로 현재까지 보존된 사례가 많지 않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되어있는 고려 시대의 주칠 술병이다. 현재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 흔치 않은 사료이며 이 술병은 주병과 잔, 잔 받침이 하나로 합쳐져 보관하기에 편리해 보인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1인 주기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형태와 크기를 갖고 있다.</p>	

【작품 15】

고려 주칠 술병의 특징을 응용해 주병과 주잔이 하나로 합쳐지는 주기를 다양한 비례로 제작하였다. 세련된 모습으로 현대에서도 1인 주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형으로 생각해 예외적으로 목기의 형태를 모티브로 제작하였다. 주병의 몸체에는 면 치기 장식기법을 활용하여 여러 각의 면을 나누어 다채롭게 장식하였고, 잔은 유물의 경우와 같이 상단부에 얹어 놓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주병의 뚜껑은 잔과 분리되었을 때 전체의 형상이 앙증맞은 느낌을 주기 위해 작은 꼭지를 강조하여 제작하였다. 잔 받침은 주병의 어깨에 턱을 주어 걸치지며 잔은 잔 받침의 굽 안쪽에 맞추어 유격을 줄였다. 반광유 계열의 다양한 색 유약을 입혔으며 잔 받침과 잔이 뒤집혔을 때 엮어지는 부분에는 유약을 닦아 미끄러지지 않게 하였다.



【작품 15】 1인 다각 주기, 300x150x155m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50℃ 산화소성

Ⅲ. 결 론

고려청자는 고려의 높은 문화 수준과 예술적 미감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정교하게 발전하였으며 청자의 형태적 조형미는 고려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청자를 격식이 있는 자리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형태와 장식도 다종다양하게 전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자의 아름다운 비색은 오늘날에도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며 유약의 투명하고 푸른색의 빛깔은 고려청자만의 유려한 형태를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본론 1장의 일반적 고찰과정을 통해 조형적 특질을 살펴본 결과 고려청자는 형과 색에 있어 명확하고 뚜렷한 것이 특징으로 ‘직관성’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의 백자에서 보여지는 함축적이고 절제된 선과는 대조되는 직관적인 미감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형적 특질은 고려청자의 형태에서 보이는 부드럽고 유연하며 세련된 곡선으로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흔히 고려 시대의 귀족문화로 대변되는 우아함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선백자와는 다르게 구체적 기능과 내재된 의미를 구체화 된 선으로 표현한 것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명확한 고려청자의 형태적 특징과 조형적 요소를 모티브로 주기(酒器) 제작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고려청자의 ‘유형별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형태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통해 본 작업에 사용할 조형 요소를 도출하여 표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조형 요소의 적용에 있어 청자가 가지고 있는 소재의 한계성을 근

거로 백자 소지에서 보이는 고도의 기능성이 현대적 주기제작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소재의 재선택에 의한 기능적 역할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고려청자의 미적 특질의 근간이 되는 비색을 토대로 백자 소지에 고려청자의 미를 구현할 수 있는 유약에 대한 실험을 전개하였다. 유약 실험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황녹색, 청녹색, 녹색, 청색 등 총 4계열의 색 유약을 제작 사용하였다. 작품 제작에 청자의 비색을 바탕으로 한 녹색 계열의 유약을 사용함으로써 고려청자에서 보이는 푸른 빛은 물론 그 외의 다양한 형상표현에 적용할 수 있는 색상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고찰을 통해 도출된 고려청자의 직관적 미와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고려청자의 형태적 유형과 색상실험은 본 연구의 주제인 주기의 제작에 있어 고려청자의 미를 함축한 주기제작에 최적화된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경질자기 소지에 의한 청자의 미감을 현대적 주기로 표현함으로써 청자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우리 일상을 풍요롭게 꾸며 줄 수 있는 도자 표현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작품 제작에 있어 새로운 주기로의 미감을 제시하기 위해 유약에 의한 표현에 중점을 두었기에 청자의 대표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감기법을 활용할 수 없었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소지에 의한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청자의 미감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경숙, 『한국도자사』, 도서출판 예경, 2012.
- 정양모, 『고려 청자』, 대원사, 1998.
- 한성옥, 『천하제일 고려청자 남도에서 꽃피다』, 학연문화사, 2022.
- 구일희, 강경남, 황현성, 『자연의 노래 유천리 고려청자』, 국립중앙박물관, 2011.
- 호림박물관 학예연구실, 『따르고 통하다, 고려주자(高麗注子) 통하고 만나다, 다반향초(茶半香初)』, 성보문화재단, 2021.
- 국립광주박물관 문화재단, 『청자에 담긴 차와 술문화 고려음(高麗飮)』, 국립광주박물관, 2021.

<학위논문>

- 강효은, 「국립박물관의 전통 주잔(酒盞)에 대한 소고(小考)」,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2010
- 박혜상, 「한국 근대기 고려청자의 미술품 인식형성과 확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웹사이트>

-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 국립광주박물관 (<https://gwangju.museum.go.kr>)
-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 (<http://www.horimmuseum.org>)
-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https://www.emuseum.go.kr>)
- 디아모레뮤지움 (<http://www.amorepacific.co.kr>)
- 전통주를 마시기에 좋은 잔은 무엇일까?, <삶과 술>, <<http://soollife.com/?p=38412>>(접속일: 2022..04. 15.).

ABSTRACT

A Study of White Porcelain Drinking Set Based on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Goryeo Celadon

Lee Jihyun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s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representative heritage of Korea, Goryeo celadon, its elaborate techniques and excellence shows the cultural level and artistry of the time. Especially through the unique shape and sophistication of Goryeo celadon can get a sense of the essence of Buddhism culture and aristocracy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aesthetics created by ancestors' lives and culture, used in various fields of arts, raise the reputation of Goryeo celadon's true value.

This study focuses on the formative beauty of Goryeo celadon and aims to use it as a motif of new morphological expression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past.

In summary, the aesthetic impression emerges from the Goryeo celadon not only from its shape but also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que colour called celadon green. In other words, understanding

Goryeo celadon's beauty demands comprehension of formative design elements and colour expression. Based on this, the beauty of Goryeo celadon is applied to the drinking vessel, which expects to provide an abundance in daily life and create a new drinking culture.

A drinking vessel is a pragmatic communication tool that guides people when they meet someone. Also, it is a tool that boosts the flavour and brightens up the atmosphere, which is necessary to have a formative aesthetic.

First of all,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o overcome the celadon's physical and functional limitations by replacing the hard porcelain, and seeking a suitable decorative method for its replacement. Secondly, aimed the morphological beauty provided by the celadon green,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make an original glaze capable of expressing a line from a formative aesthetic and an attractive outline by ceramic clay. It used adequate jiggering and casting techniques suitable for manufacturing the components of the drinking sets and tried to find the surface decoration method to harmonize with the produced glaze. Its decoration methods include openwork, embossed carving and intaglio, and it also tried to emphasize decorativeness and functionality by grafting with other materials.

In conclusion, by suggesting the modern drinking vessel which gives relaxation and richness to our lives and presents the possibility of re-recognition of traditional values as a formative aesthetic expression through reconstitution and recombination of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formative aesthetics of Goryeo celadon.